

십자가의 보혈 9

제단이 피로써 거룩해짐

출 29: 37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구약의 제사장에게는 반드시 제단이 있어야 했다. 제사장 자신이 피로써 거룩해 져야 했고 제단 역시 피로써 거룩해 져야 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제단을 속하게 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릴 것을 명하셨다.

모세는 칠일 동안에 제단을 속하는 일을 해야 했다.

레위기 8:15 모세가 (속죄 제물을)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로써 그 제단은 거룩하게 되었음은 물론 “지극히 거룩하게되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를 묘사하는 표현과 동일한 것이다. 제단이 그 지성소와 동일하게 거룩하다는 표시이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었고, 제단은 사람이 다가 갈 수 있는 “지성소”였다.

“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출애굽기 29:37). 일곱 번씩 피로 속함으로써 제단은 거기에 접촉하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지닐 만큼 거룩한 것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도 제단이 예물을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 하셨다.

마태복은 24:19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나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나

제단은 피를 일곱 번씩 뿌림을 받음으로써 거기에 놓여진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을 부여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화목 시키는 능력이 있고 죄에 대하여 승리를 얻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그 보혈의 새로운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 보혈을 흘린 십자가는 예수께서 거룩하게 되신 제단일 뿐 아니라 그 제단 자체가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도 그 제단 위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받으실만한 것이 된다.

십자가는 제단이다. 제단은 죽이는 장소요 희생의 장소이다. 희생의 제단이 선포하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의 법이다. 하나님으로서는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다. 하나님으로서는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길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도 죽어야 하는 십자가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도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강조할 뿐 아니라 제자들도 그를 따라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그저 외형적인 고난이나 죽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적인 자기 부정을 말씀하신 것이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와의 교제로서 자기 자신의 삶을 미워 하고 버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

다.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내게는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에 나온 이와 같은 말씀들은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의 죄책에 대한 희생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특징이요 능력으로 여겨야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예수님의 지상 생애는 십자가 위에서 그 절정에, 완전함에 도달하셨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그가 그리스도이셨을 수가 없다. 하늘로부터 임한 그리스도의 생명도 우리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생명을 제공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라는 말 다음에 “내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삶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땄라야 땄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한다.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는 장소에 거하여야 한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한자로 만들어야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

바울이 자랑하는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못박히셨고 또한 바울 자신이 함께 못박힌 십자가이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는 자랑하지만, 자기 자신을 그 위에서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기서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 하신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신 그 보혈이 그 십자가를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교제를 갖는 우리가 생명의 길을 찾게 된 것이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전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자기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십자가야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제단인 것이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단이 되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다. **“제단에 접촉한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출 29:37)**고 말한다.

십자가-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달아서 그 십자가를 택하여 그것을 든든히 붙잡을 때,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생명의 능력이 솟아나와서 그것이 나를 든든히 붙잡아서 나로하여금 십자가에 못박힌 자의 삶을 살게 해 주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의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믿고 그 십자가와 교제하는 삶을 추구하는 정도만큼 내가 점차적으로 그리고 더욱더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거룩함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의 무한 절대적인 자원을 공급받는 삶과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의미한다. 거룩이라는 말을 잘 못 이해 하면 우리의 일상 생활과 거리가 먼 종교적인 삶에 깊이 빠져 들어간 비 사회적 인물인 되는 것으로 오해 된다. 그러나 거룩함이란 주님과 더 가까워짐으로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림으로 일상 생활의 모든 면에서 능력 있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다. 참된 거룩을 맛본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매력적인 삶을 사는 비결은 십자가의 재단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은 것이다.